

A Tempo

국어 2회

전현근 | 김명수 | 남은식



iBex Study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저자와 독자가 문자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이란 저자가 글로 구성된 메시지를 독자가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은 저자가 독자의 독서 과정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할 때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독자의 사전 지식과 관심 등을 예측하고,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글감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글을 쓸 때 저자는 독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생략하기도 한다. 또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용을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숨겨진 정보를 독자들이 추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저자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글을 쓰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독자는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며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응한다. 글을 읽으며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하기도 한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숨겨진 내용이나 저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깊이 있게 글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한다. 나아가 독서를 하며 새로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등 독서 활동을 확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즉 독자는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자와의 의사소통의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독자가 글의 주제를 찾으며 읽는 방식
② 독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며 읽는 방식
③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며 읽는 방식
④ 독자가 글을 읽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방식
⑤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방식

2.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산의 바다 안에는 ㉠어족이 매우 번성하여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무니 ㉡사물에 정통한 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나는 이에 널리 섬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계보를 만들 생각을 하였는데, 사람마다 각자 말이 달라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그를 불러들여 머무르게 하면서 그와 함께 연구하고 차례를 매겨 책을 완성하고는 '자산어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이외에도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하여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삼았다. 다만 나는 고루하여 혹 이미 본초서에서 보았는데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 ㉤옛날에 이름이 없는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단지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상스러워 읽을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감히 이름을 새로 지었다.

- 정약전, 「자산어보 서(序)」 -

- ① ㉠에서는 저자가 독자의 사전 지식을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② ㉡에서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③ ㉢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④ ㉣에서는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⑤ ㉤에서는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내용을 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심리학자 바틀렛은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디언 전설'을 읽게 한 후,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 그 내용을 회상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해 내는 특징을 보였다.

- ① 독자의 독해 능력은 동일한 글을 반복하여 읽을수록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독자와 저자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글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④ 독자마다 독서 태도가 다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습득하는 정보의 양은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 ⑤ 독자가 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독자와 공유하기 때문이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회화의 음악적 조형언어란 회화 이미지의 구성 및 시각적 요소인 조형 요소가 음악적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회화가 작가의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언어를 통해 표출해내는 것이라면, 회화의 음악적 조형언어는 시각적 조형언어를 음악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며, 나아가 회화 작품 속에 내재된 음악적 요소를 지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 회화에 있어서 음악은 예술가의 작품세계가 가진 독창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회화를 구성하는 음악적 요소인 음악적 조형언어들을 통해 관객들은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시각적 실재를 넘어 그 안에서 음악이라는 청각적 환영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의 음악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적인 것으로, 내면적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가로 하여금 내적 충동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화가가 음악을 들으면 시간적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회화로 표현한다. 작곡가가 회화 작품을 통해 작곡에 수반되는 영감을 얻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공감각 현상**은 내적 충동의 일종이다. 공감각 현상은 신경학적 현상의 하나로써 색을 통한 공감각이 대표적이며 귀로 들은 음악이 시각인 색상으로 보이는 증상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회화 작품 속에 내재된 음악적 요소를 나타내어 지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음악적 조형언어는 정서라는 소재의 흐름에 질서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며, 소리를 매개로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화하고 공감의 가치 기준을 **③**가질 수 있게 만든다.

(나)

음악과 미술의 조화와 융합을 시도한 기원은 고대 이집트의 회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집트 시대의 회화 자료 중에는 당대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그리거나 새긴 벽이나 그릇 등의 도구가 전해지고 있는데, **㉠**랍세스 3세 무덤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하프 연주자의 모습 등은 연회와 같은 중요한 행사 때마다 음악이 연주되었고, 그 모습을 벽화를 통해 기록하였음을 보여준다.

고대 예술에서부터 시작된 회화와 음악의 융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는 19세기 회화부터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예술가들은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의 조건들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예술가들의 인식은 특히 미술의 색채와 음악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게 만들었고, 예술가들은 회화에 음악을 접목하려는 여러 시도를 통해 새로운 예술 사조를 탄생시켰다. 영국의 비평가 **㉡**윌터 페이터에 따르면 회화와 음악의 접목이 이루어진 이유는 모든 예술이 음악의 상태를 항상 동경하기 때문이다.

20세기 회화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전개를 거듭하며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미적 의식을 탐구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창조성에서 기인하였다. 몬드리안은 빈 캔버스를 자연주의적 공간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하여 이전의 단순성에서 탈피해 움직임을 더욱 강조하며 음악적 운율을 담아내려고 하였다. 이는 기존 관습과 규범의 파괴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다. 또한 칸딘스키는 음악적 순수성의 시각화를 위해 완전 추상회화 제작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20세기 회화의 흐름 속에서 음악과 예술의 상호작용은 기존의 회화 양식에서 탈피해 창조적인 미술 세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회화와 음악의 조화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였고 (나)는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 ② (가)는 현대의 변화된 회화의 양상을 분석하였고 (나)는 이를 전통적인 회화의 특징과 비교하였다.
- ③ (가)는 회화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을 서술하였고 (나)는 예시를 통해 이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회화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나)는 음악에서 그 사례를 보여주었다.
- ⑤ (가)는 회화와 음악의 융합이 가지는 장단점을 나열하였고 (나)는 이를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었다.

5.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서 악기 연주자의 모습을 통해 음악과 미술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19세기 예술가들은 미술의 색채에 음악을 접목시키려 하였다.
- ③ 몬드리안은 빈 캔버스를 활용하여 이전의 단순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 ④ 칸딘스키는 완전 추상회화 제작을 통하여 창조적인 미술 세계를 확립하려 하였다.
- ⑤ 20세기 예술가들은 기존의 미적 의식을 능동적으로 계승하였다.

6. [공감각 현상]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쇤베르크의 음악 <달의 피에로>를 듣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종이에 그린다.
- ② 마티스의 회화 <춤>을 보고 강렬한 색채 이미지를 따라 그림을 수정한다.
- ③ 칸딘스키의 회화 <홍수>를 보며 떠오른 점과 선의 이미지를 악보에 옮긴다.
- ④ 쿨레의 회화 <전시회>를 보고 얻은 음악적 영감을 수필로 작성한다.
- ⑤ 슈베르트의 음악 <마왕>를 듣고 어둡고 무거운 마왕의 모습을 석고상으로 조각한다.

7. <보기>에 나타난 회화에 관점에 따라 ㉠에 대한 ㉡의 관점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회화는 인류 생활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등장한 예술 종류의 하나이며, 가장 뚜렷한 기능은 사람들을 심미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기록이다. 회화는 등장할 때부터 사진이 출현한 지금까지도 현실을 기록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초상화는 오랫동안 인물의 외모와 형태 특징을 기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회화도 다수 존재한다.

- ① ㉠은 사진과 비교할 때 기록적 기능은 부족할 수 있지만, 심미적 기능은 더 뛰어나다.
- ② ㉠이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회화가 미술을 동경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 ③ ㉠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화의 가장 뚜렷한 기능은 심미적 기능이며, 이는 그 당시 생활과 문화를 충실하게 보여준다.
- ④ ㉠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회화가 음악과 접목한 것보다는 회화 자체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
- ⑤ ㉠은 회화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인류 생활에 등장한 예술이라는 증거이며, 회화가 음악을 동경한 역사적 기록이다.

8.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개의 망치 소리에 나타나는 음의 높이를 통해 화음의 원리를 밝혔던 것에 주목하였다. 피타고라스는 음의 높이가 공기의 진동수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을 발견하고, 연속적으로 분포된 진동수 가운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불연속적으로 배열된 진동수를 택해 '순정률'을 만들었다. 다빈치는 이를 확장시켜 타격음으로 생긴 음파들을 원근법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거리에 따른 소리의 감소 연구」에서 소리 m 은 거리 d 에서 반으로 감쇠되는 반면 m 의 두 배의 크기의 소리인 n 는 같은 거리 d 에서 1/4만 감쇠된다고 하였다. 이는 회화에서 한 가지 색상만을 사용해 단계적으로 명암을 변화시킴으로써 물체에 입체감과 거리감을 표현하는 투시 원근법으로 이어졌다. 다빈치는 투시 원근법의 적용을 통해 음악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화음과 같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 ① (가)에 따르면 <보기>의 '순정률'은 회화에서 '음악적 조형언어'의 일종이겠군.
- ② <보기>에 따르면 음의 세기가 n 보다 두 배 강해지면 거리는 1/8만큼 줄어들겠군.
- ③ (가)에 따르면 '투시 원근법'을 통해 그려진 그림에서 감상자는 청각적 환영을 느낄 수 없겠군.
- ④ (가)에 따르면 '투시 원근법'에서 한 가지 색상만을 사용한 것은 '순정률'처럼 불연속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서겠군.
- ⑤ (가)에 따르면 <보기>의 '투시 원근법'은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화시킨 것이겠군.

9.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 ② 아버지는 매일 오전 신문을 가지러 현관에 가신다.
- ③ 교장 선생님은 수학 여행지를 정하기 위해 교직원 회의를 가졌다.
- ④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만 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 ⑤ 친구가 관리하는 마굿간의 말이 새끼를 가졌다.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크리스탈러는 1933년 “도시의 수, 규모, 그리고 분포를 규정하는 법칙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남독일의 도시 분포를 기초로 하여 중심지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심지 개념에 비추어 도시의 규모, 수, 거리 사이에 일정한 분포 원리가 작용하여, 각 중심지 사이에 육각형의 상권이 ㉠형성됨을 밝혔다.

중심지란 중심기능을 수행하여 배후지에 대해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교환의 편의를 도모하는 지점을 말한다. 중심기능이란 도매업이나 소매업, 교통·통신업, 행정·교육,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의 기능을 뜻하며 중심지가 보유하고 있는 3차 산업의 기능 정도를 그 중심지의 중심성이라고 한다. 한 도시의 중심성은 그 도시 자체의 인구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대체로 도시의 인구규모가 크면 그 도시의 중심성도 크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중심성이 커지면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지역인 배후지의 규모도 커진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고 계속 ㉡존립하기 위해서는 중심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 최소한의 수요가 최소요구치이다. 다시 말해, 최소요구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며 계속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를 의미한다. 공간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최소요구치는 중심기능이 존립할 수 있도록 인구가 확보되는 배후지의 규모와 같다. 이때, 배후지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최소요구치는 줄어든다. 하지만 중심기능은 공간극복 비용 때문에 공간상에서 무제한 공급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운송비 때문에 일정 거리 안에 있는 고객만이 중심지의 재화와 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심기능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거리를 최대도달범위라고 한다. 중심지로부터 이 한계점 이내의 공간이 바로 중심지의 배후지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교통이 발달하여 운송비가 낮아지면 최대도달범위는 확대된다. 최소요구치와 최대도달범위는 중심지의 성립조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며,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최소요구치보다 최대도달범위가 커야 한다.

그러나 여러 고려사항과 성립조건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 중심지이론은 지형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질적 평면 공간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소비자는 여러 정보에 ㉣입각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항상 추구하여 행동하지는 않는다. 셋째, 도시 기능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3차 산업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도시의 구조를 육각형 구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넷째, 중심지

이론은 정태적인 균형 모델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심지이론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연역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일반 규칙을 도출한 것이지만 현실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중심지이론에만 의존해서는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10.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지이론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중심지이론의 제시된 시대적 배경을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③ 중심지이론의 필요성을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주장하고 있다.
- ④ 중심지이론과 상반된 이론을 제시하고 중심지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중심지이론의 특징을 서술하고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11. ‘중심지이론’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지이론의 적용은 3차 산업에 한정된다.
- ② 중심지이론에서 도시의 인구규모와 배후지의 규모는 비례한다.
- ③ 중심지이론에서 운송비가 최소요구치보다 항상 작다면 중심기능은 무제한 공급될 수 있다.
- ④ 중심지이론에서 도시의 중심성이 커지면 중심지의 최소요구치는 늘어난다.
- ⑤ 중심지이론은 시간에 따른 도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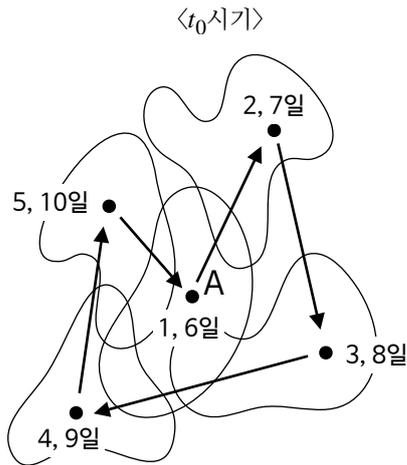
[A]

[12~13] <보기>에 따라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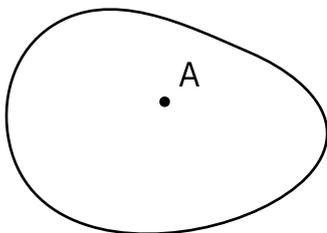
정기시장이란 상설시장과 달리 주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말한다. 정기시장의 형성을 중심지이론의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상인은 자신의 최대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면 이동할 필요가 없이 고정된 장소에서 상설점포를 경영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최대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보다 작으면, 그 지점에 상설점포를 경영할 수 없어 상인들은 필요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시장들을 순회하면서 점포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 즉 정기시장은 상인들이 집단으로 순회하면서 점포를 개설함으로써 형성된다. 상인들은 여러 시장을 순회함으로써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정기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구매에 필요한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다.

다음은 시기에 따른 상인 A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각 점은 시장을 의미하며, 화살표는 시장의 이동 방향, 영역은 상권, 숫자는 장날을 의미한다.



A는 5일마다 장이 서는 정기시장을 주기적으로 돌아 다니며 물건을 판다.

<t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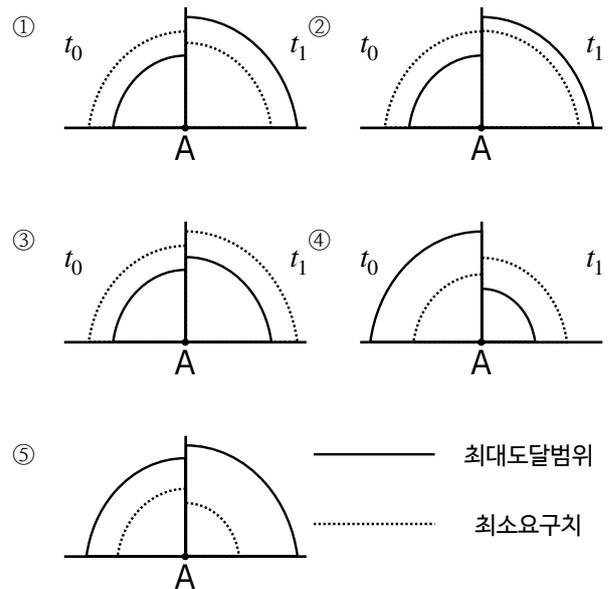


주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통 발달로 A는 상설점포를 경영하게 되었으며, 다른 시장을 순회하며 물건을 팔 필요가 없게 되었다.

12. [A]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기>의 A는 자신의 최소요구치를 충족할 수 없어 여러 시장을 순회하는 것이다.
- ② 한 지역의 인구 규모가 커지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A는 더 적게 이동할 것이다.
- ③ <보기>의 A가 순회하는 정기시장의 최소요구치는 모두 최대도달범위보다 클 것이다.
- ④ <보기>의 A가 시장을 순회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최소요구치보다 늘어나면 이들은 상설점포를 경영할 것이다.
- ⑤ 교통이 발달하여 <보기>의 A의 최대도달범위가 증가한다면 A에게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구매에 필요한 평균 이동거리는 늘어날 것이다.

13. 중심지이론에 따라 <보기>의 상인 A의 t₀, t₁ 시기에 해당하는 최대도달범위와 최소요구치를 옳게 표현한 것은?



14. 문맥상 ㉠~㉥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생(發生)
- ② ㉡: 존속(存續)
- ③ ㉢: 참고(參考)
- ④ ㉣: 의거(依據)
- ⑤ ㉤: 능가(凌駕)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용 후 핵연료란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말한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3~5년간 핵분열을 하며 연소한 뒤 교체되는데, 이를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한다. 이 사용 후 핵연료에는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가 1% 가량 남아 있다. 이 플루토늄-239와 우라늄-235는 모두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빼내어 다시 사용하면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사용 후 연료에 남아 있는 유효성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하게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원자로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는 최종적으로 처분이나 처리되기 전까지 저장을 해야 하는데, 냉각 방식에 따라 습식 저장과 건식 저장으로 나뉜다. 습식 저장은 물을 이용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붕괴열을 냉각시키고 방사선을 차폐하는 방식이며, 건식 저장은 습식 저장소 내에서 일정기간 저장하여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 후 건조시켜 저장하는 방식이다. 습식 저장 방식은 부지 소요 면적이 작아 저장 효율이 좋고 저장 중 검사나 수리 등 여러 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영 중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냉각 및 정화 등 설비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가 건식 저장 방식에 비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건식 저장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방식으로서, 물 속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습식 저장 방식과 달리 별도의 용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기 때문에 장기 관리가 유리하고 안정성이 높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습식 저장소의 일부 사용 후 핵연료가 파손되었으나, 건식 저장소의 금속용기내의 사용 후 핵연료는 온전히 보전되어 건식 저장 방식의 상대적 저장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핵 재처리 기술을 통해 재사용된다. 이 중 ㉠파이로 공법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식 처리 기술로 사용 후 핵연료에 남아 있는 다양한 핵물질 중 잉여 우라늄을 선택적으로 회수한다. 회수과정은 핵연료의 용해 및 전해반응을 이용한 우라늄 회수와 음극(-)처리공정으로 구성된다. 우선 500℃ 이상의 고온의 용융염*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용해하여 산화우라늄을 얻은 후 여기에 전류를 보내 전해반응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양극(+)에서는 염소이온의 산화반응에 의하여 염소가 생성됨과 동시에 우라늄 및 기타 핵물질과 반응하여 이들을 염화물로 전환시키고, 이 염화물이 용융염에서 용해되는 과정을 이용한다. 동시에 음극(-)에서는 우라늄 이온의 환원반응이 진행되고, 우라늄 금속만이 모이게 된다.

*용융염: 고체의 소금을 상온에서 녹인 것.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만을 다시 사용한다.
- ② 건식 저장 방식은 사용 후 핵연료를 건조시켜 온도를 낮춘 다음 저장소에 전달한다.
- ③ 건식 저장 방식은 금속용기를 사용하여 저장 효율이 좋다.
- ④ 건식 저장 방식보다 습식 저장 방식의 안정성이 높다.
- ⑤ 건식 저장 방식은 특수 용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한다.

16.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융염에서는 최소 두 번의 용해가 발생한다.
- ② 파이로 공법에는 높은 온도가 요구된다.
- ③ 양극(+)에서는 전해반응을 통해 염소가 생성되어 핵물질을 염화물로 전환시킨다.
- ④ 음극에서는 우라늄 이온 이외의 환원반응은 진행되지 않는다.
- ⑤ 음극에서는 우라늄 이온의 환원반응과 산화반응이 동시에 발생한다.

17.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퓨렉스 공법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습식 핵연료 재처리 방식 중 하나로, 사용 후 핵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후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추출한다. 우선 사용 후 핵연료를 강한 질산 수용액에 담가 용해시킨다. 그 후 유기 용매인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는 TBP 용액에, 다른 핵물질들은 질산 수용액으로 분리된다. 그 다음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상호 분리하기 위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함유된 유기용매를 회수하여 순수한 질산 용액과 접촉시킨다. 그리고 플루토늄의 환원과정을 거치면 유기용매에 있는 플루토늄은 TBP에서 떨어져 나와 질산 수용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퓨렉스 공정으로는 우라늄과 더불어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어 핵무기로의 악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제한된 국가들에서만 퓨렉스 공정의 활용이 가능하다.

- ① ㉡은 ㉠과 달리 습식 처리 기술이겠군.
- ② ㉠과 ㉡ 모두 선택적으로 핵물질을 회수하는군.
- ③ 사용 후 핵연료를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의 TBP 용액은 ㉠의 전해반응에 대응되는군.
- ④ 사용 후 핵연료를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의 질산 수용액은 ㉠의 양극(+)에 대응되는군.
- ⑤ ㉠은 ㉡보다 핵무기로의 악용 가능성이 낮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천 씨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온다. 사내는 주막집 눈 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달라고 한다.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그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의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북풍 끝에 흡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그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사립문을 들어서던 것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겐 아마 의붓아버지가 되었을 뻔한 그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수가 없게 됐제. 그래서 끝내는 애 어미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에 그 길로 곧 핏덩일 싸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네!”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답답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도 그때의 그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겐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 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었다.

괴롭고 고통스런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반생을 지내온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이었다.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대개 짐작이 가겠네마는, 어쨌거나 나는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 이 마흔이 넘어서도 그 누추한 어릴 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런 청승맞은 소리 비렁뱅이질을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에 그 발두렁가에 누워 보던 바다비늘이 아슴아슴 떠오르고 꼴짜기 숲으로부터 북더위를 씻어가던 한 줄기 바람결이 내 얼굴을 지나가고…… 아니 그보다도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섭게 들끓고 있던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곤 하니 말이네. 그런데 말이네, 그런데 난 오늘 밤 자네한테서 내 눈썹을 불태울 것 같은 그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

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 까닭을 알겠는가…….”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별을 머리 위에 견디고 있는 듯이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중략)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질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 씨가 아직도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들기 시작했소.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복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답니다. 오라비의 숨씨는 옛날의 제 아비 되는 노인의 숨씨 그대로였소.”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뻘 자넬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지요.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놀아 나가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오.”

“그렇다면 글썸……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오.”

“오라비가 자넬 죽이고 싶어 하다니?”

사내의 ㉤두 눈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도 의붓 아버지를 따라다닌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하게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빈 그걸 무슨 헛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오라비가 그 헛덩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오.”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뽑았던가?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내고 싶었던가 말이네.”

“.....”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돌았다면 어쩌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진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니다까. 오라버닌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는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가신 것입네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아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버니도 죽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오.”

“.....”

틈을 주지 않고 물어대던 사내가 마침내 **㉔입을 다물었다.**

- 이청준, 「소리의 빛」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자’와 ‘오라비’는 ‘천 씨’의 주막에서 함께 소리를 했다.
- ② ‘오라비’는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스러워 한다.
- ③ ‘천 씨’는 ‘오라비’가 ‘여자’에게 화를 낸 이유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 ④ ‘노인네’는 ‘오라비’가 자신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⑤ ‘사내’와 ‘여자’는 서로 남매 사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19.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㉑~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오라비’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전달하나 두드러진 감정 변화는 없는 모습이다.
- ② ㉒: ‘오라비’가 과거 자신이 느낀 고통을 다시 상기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 ③ ㉓: ‘천 씨’가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과 우려를 드러낸 표현이다.

④ ㉔: ‘오라비’가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모습이다.

⑤ ㉔: ‘오라비’가 ‘천 씨’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여자’를 이해한 것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20. ㉑와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는 ‘오라비’가 ‘여자’를 만난 계기가 된다.
- ② ‘여자’는 ‘오라비’가 ㉑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오라비’가 ㉑를 ‘여자’에게 말한 것은 ㉑를 숨기기 위해서이다.
- ④ ‘오라비’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자’는 ㉑를 ㉑로 받아들인다.
- ⑤ ㉑가 ㉑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여자’는 ‘오라비’를 이해하게 된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람들은 자신이 당장 이룰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무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진짜 마음을 노출하기도 한다. 「소리의 빛」에서는 등장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외면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여자의 소리를 들은 오라비가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자에 대한 오라비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군.
- ② 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오라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오라비와 소리를 하며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군.
- ③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에서 노인은 오라비가 자신을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소리를 통하여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벗어나려 하는군.
- ④ 오라비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친 것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군.
- ⑤ 오라비가 ‘말도 없이 문을 나갔’던 것은 여자와 만난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서이지, 자신의 살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콩깍지 더미 곁으로 오솔길 나뉘어 있는데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소 떼들이 흩어지네.
 푸른 하늘은 가을 든 산봉우리를 물들이려는 듯
 맑은 기운에 비 갠 뒤의 구름은 먹음직스럽네.
 갈대에 햇살이 반짝반짝,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벼잎에 썩하는 소리, 붕어가 야단스러운가 보다.
 산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 달라 졸라 봐야지.**

- 이덕무, 「농부의 집에 쓰다」 -

(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A] 부급동남(負莧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無心) 어조(魚鳥)*는 자한한(自閑閑)하였더니
 조만(早晚)에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B]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明哲) 군자(君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라 빈천거(貧賤居)를 하오
 리라
 <제8수>

궁달(窮達) 부운(浮雲)같이 보아 세사(世事) 잊어 두고
 [C] 호산(好山) 가수(佳水)에 노는 뜻을
 원학(猿鶴)*이 내 벗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아실꼬
 <제10수>

제월(霽月)*이 구름 뚫고 솔 끝에 날아올라
 십분(十分) 청광(淸光)이 벽계중(碧溪中)에 비꼰거늘
 어디서 무리 잃은 갈매기 나를 좇아오는가
 <제12수>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 없어
 [D] 송관(松關)을 닫고 월하(月下)에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제13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E]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텐들 어떠리
 <제17수>

강간(江干)에 누워서 강수(江水) 보는 뜻은
 ㉠서자여사(逝者如斯)하니 백세(百歲)인들 몇 근이요*
 십년 전(十年前) **진세(塵世)* 일념(一念)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십재황황: (마음이 급하여) 십 년을 허둥지둥함.
 *무심어조: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
 *원학: 원숭이와 학.
 *제월: 비가 갠 하늘의 밝은 달.
 *서자여사하니 백세인들 몇 근이요: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긴 세월이겠는가.
 *진세: 정신에 고통을 주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했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있는 홀겉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 본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올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 파릇 짝이 움 돋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흐른다. 미구에 잎이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 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이 울 리 없다.** 지난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결만 남았을 때, 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

나졌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결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썩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 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낸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 윤오영, 「봄」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화자는 자연물을 관찰하며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서 화자는 과거를 직시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 글쓴이는 일상의 단면을 포착하여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있다.
- ④ (가)와 (나)에서 화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 모두 외부와의 단절을 바탕으로 자아 탐색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농촌의 정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또한 농촌 생활과 관련된 일상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에서는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주로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한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드러낸다.

- ① (가)는 ‘붉은 아침 햇살’이 농촌에 퍼지는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농촌의 정경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군.
- ② (가)는 ‘양지 바른 곳’이라는 농촌 생활과 관련된 일상어와 ‘빌려 달라 줄라 봐야지.’를 통해 농촌에 살고 싶은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군.
- ③ (다)에서 글쓴이는 ‘화려하고 찬란한’ 봄의 이미지를 통해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의 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군.
- ④ (다)에서 글쓴이는 ‘서쪽 가지’에 ‘봄이 올 리 없다.’는 상념을 바탕으로 노년의 시선에서 청년과 노년의 봄을 대비하고 있다.
- ⑤ (다)에서 글쓴이는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된다는 것에서 봄에서 희망찬 앞날을 느끼고 있군.

2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화자가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B]에서 화자가 홀로 기로에 서있는 모습에서 [A]에 나타난 고민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C]에서는 자연 속에서 화자가 [B]에 나타난 고민을 잠시 미뤄서 뒀음을 알 수 있다.
- ④ [D]에 나타난 화자의 여유로운 모습은 [B]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 ⑤ [E]에서 화자는 [A]와 [D]가 대립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지나간 세월에 대하여 달관한 화자의 모습이, ㉡은 미래에 대한 글쓴이의 기대가 드러난다.
- ② ㉠의 화자는 빠르게 흐를 세월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며 ㉡의 글쓴이는 지나간 세월에서 앞으로의 가치를 찾고 있다.
- ③ ㉠의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낙관하는 반면 ㉡의 글쓴이는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일상적 삶을 보여주는 반면 ㉡은 글쓴이가 인간의 유한성을 떠올리게 한다.
- ⑤ ㉠과 ㉡ 모두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26.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늪은이의 봄’을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봄이 또 하나 오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 ③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화려한 청춘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 ④ 겨울을 이겨 낸 ‘동쪽 가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 ⑤ ‘생활’에 따라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봄’에 간직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에서 봄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거십팔곡」의 작가 권호문은 장년기에 들어 과거를 통한 현실 진출에 좌절을 겪게 되면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명(功名)의 공간과 자연 속의 한가로운 삶을 추구하는 한거(閑居)의 공간을 대립적으로 인식하였다. 이 작품에는 유교의 사회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공명의 삶과 자연을 즐기려는 한거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화자는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세계와 강호에 대한 인식, 이에 따른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다.

- ① ‘공명’은 화자가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이지만, ‘못 이룰까 하여라’을 통해 화자가 나이가 들어 현실 진출에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에서 화자가 공명 대신 한가로운 삶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 ③ ‘갈 데 몰라 하노라’에서 화자가 공명의 공간과 한거의 공간을 대립적으로 인식하여, 두 공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당대 사대부들이 강호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에서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에 나타난 화자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수성궁 옛터에서 술에 취해 잠든 유영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 대군의 손님으로 온 김 진사는 궁녀인 운영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대군이 그 지은 글을 보고 매우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글이 날로 훌륭해져서 내 마음이 무척 기쁘구나. 그러나 다만 운영의 시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뜻**이 현저하구나. 전에 연기를 읊은 시에도 살짝 그런 뜻이 보이더니만 지금 또 이러하니, 네가 따르고자 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얼마 전 김 진사가 지은 글에 이상한 글귀가 있어 의심스럽던데, 혹시 네가 김 진사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냐?”

첩은 즉시 뜰에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말했습니다.

“주군께 처음 의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싶었으나 제 나이 아직 스물이 못 되었고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너무도 원통하여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고 고통을 참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A] 하오나 지금 또 의심을 받고 보니 한번 죽는 것을 어찌 애석히 여기겠습니까? 천지 귀신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고 시녀 다섯 사람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건만 더러운 이름이 유독 제게만 돌아오니 첩은 이제 여기서 죽어마땅합니다.”

(중략)

대군이 서궁 시녀 다섯 사람을 뜰 안에 붙잡아 와 곤장이며 형벌 기구를 눈앞에 벌여 두고 분부를 내렸습니다.

“이 다섯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하라!”

또 곤장 든 자들에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곤장 숫자를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라!”

우리 다섯 사람이 말했습니다.

① “한 말씀만 올리고 죽기를 바라나이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더냐? 실정을 남김없이 적어 바치라!”

은섬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으로부터 부여받아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히고 난 뒤에는 이 한 몸 외로운 그림자와 짝하여, 꽃을 보고 눈물을 삼키고 달을 마주해서는 슬픔으로 낮이 나갑니다. 저희가 매화나무에 앉은 피꼬리를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주렴 위의 제비 집에 암수가 함께 동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몹시 부러운 마음과 질투하는 정을 이기지 못해서일 따름입니다.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건만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럴만한 힘이 없어서거나 그러고 싶

은 마음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오직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이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궁궐 안에서 말라 죽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죽을 곳에 놓였으니, 저희들은 죽어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비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피 주신 은혜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기에 저희들은 감사하고 황송해하며 오직 글과 음악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이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이름을 서궁에 두루 미치게 되었으니 살아도 죽느니만 못합니다. 없드려 바라건대 속히 죽여 주옵소서."

옥녀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이미 서궁의 영광을 누렸거늘 서궁의 재앙이라 해서 저 혼자 면할 수 있겠습니까? 곤륜산에 불이 나서 옥과 돌이 한꺼번에 모두 탄다 했지만, 오늘의 죽음은 합당하다 여기겠습니다."

자란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오늘 일은 그 죄가 측량할 길 없으니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어찌 감추겠나이까? 저희들은 모두 여향의 천한 계집들로, 아버지는 순임금이 아니요 어머니는 아황과 여영이 아니니 남녀의 정욕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목왕은 천자로되 늘상 요지의 즐거움을 그리워했고, 향우는 영웅이로되 장막 안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건만 **주군은 어찌하여 운영에게만 유독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김 진사처럼 빼어난 인물을 내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주군께서 하신 일이며, 운영에게 베푸시중을 들게 한 것 또한 주군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운영은 오랫동안 깊은 궁궐에 갇혀 지내며, 가을 달 봄꽃에 늘상 마음 상하고 오동 잎 밤비에 자주 애간장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호걸스런 사내를 보고는 상심하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까지 들어오고 말았으니 불로장생의 약이나 편작의 솜씨로도 효험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운영이 하룻밤 사이에 아침 이슬처럼 홀연히 스러지고 나면 주군이 비록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진다 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만, 김 진사로 하여금 운영을 얻게 하여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 주신다면 주군의 적선하심이 그보다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에 운영이 절개를 더럽힌 일이라면 그 죄가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위로는 주군을 속이지 않고 아래로는 벗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니, 오늘 일은 죽어도 영예롭게 여길 것입니다. 운영의 죄를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다면 일백 번 죽어도 좋습니다. 없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목숨을 끊고 운영의 목숨을 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B] "주군의 은혜가 산과 같고 바다와 같건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저의 첫째 죄입니다. 전후에 지은 시로 주군의 의심을 받았으면서도 끝내 바른대로 아뢰지 않은 것이 둘째 죄입니다. 서궁의 죄 없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받게 된 것이 셋째 죄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으니 제가 산들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혹여 죽음을 늦추신다면 마땅히 자결하겠나이다."

대군이 다 읽고 다시 자란의 진술서를 펼쳐 응시하더니 노기를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소옥이 꿇어앉아 울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나들이 때 성안으로 가지 말자던 것이 본래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부탁하기에 가련히 여겨 여럿의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제가 앞장서 그 뜻을 따랐으니, 운영이 절개를 더럽힌 죄는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없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목숨을 끊고 운영을 살려 주소서."

대군의 노기가 점점 풀어져 저를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풀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2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울문투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입체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고조된 긴장감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29.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군은 운영의 시와 김 진사의 글의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 ② 옥녀는 운영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 ③ 자란은 운영의 잘못에 대한 대군의 책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섬은 옥녀와 달리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⑤ 소옥은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운영의 잘못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3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부모님을 떠올리며 구차해진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고 있다.
- ② [A]와 [B] 모두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며 그에 대한 벌로 죽음을 택하려 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B]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며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④ [A]에서는 상대방의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해, [B]에서는 죄 없는 사람들까지 연루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의심을 받고 죽고 싶은 마음을, [B]에서는 의심을 받고도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운영전」의 궁녀들은 당대의 궁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수성궁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절대 권력에 맞서며 일반적인 궁녀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전형성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가치 등을 강조하며 권력에 대항하였다. 「운영전」의 궁녀들은 중세의 여성으로서, 수성궁의 궁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 ① 궁녀들이 대군에게 진술하는 것은 절대 권력에 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심이 '남녀의 정욕은 음양으로부터 부여받아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자린이 '주군은 어찌하여 운영에게만 유독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라고 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존재론적 의미에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운영에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뜻'이 금지된 것은 수성궁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⑤ 운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절대 권력에 맞서며 일반적인 궁녀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전형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저었다. 갈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굿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올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줌 흙을 헤치고 나죽—이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나)

㉠관(棺)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맞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 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兄)님!

불렀다.

오오나. 나는 전신(全身)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톡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 박목월, 「하관」 -

3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주변 환경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며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여러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시선의 이동을 통해 화자가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답답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다.

33.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와 가까운 누군가 죽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화자가 죽은 사람을 꿈에서 만난 것은 그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을 통해 화자와 죽은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 ④ ㉣에서 화자가 죽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열매가 죽은 사람을 나타낸다면, ㉣은 화자가 속해있는 세상으로 볼 수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의 감상자는 직접 느끼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죽음을 내면화하여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죽음이 성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가역적 상실은 감상자가 자신의 입장에 이입하여 상상할 수 있고 타인의 죽음에 대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수철리(水鐵里)」는 죽은 동생의 무덤을 다시 찾은 화자가, 「하관」은 죽은 동생을 묻으며 화자가 느낀 슬픔과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과 ‘체온이 꺼져 버린’에서 감상자는 죽음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죽음이 비가역성을 지니고 있다면, 감상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네 음성을 / 나만 듣는’ 화자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군.
- ③ (가)의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를 통해 감상자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무게감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군.
- ④ (나)의 ‘좌르르 하직했다.’와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통해 감상자는 되돌릴 수 없는 동생의 죽음을 향해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서러움을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와 (나)에서 감상자가 시적 상황에서 동생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감상자는 문학 작품 속 죽음을 통해 성찰하기 어렵겠군.



iBex Study